

사·부·대·중

시주자 이름 새기기

우리 불교계는 진속(眞俗)을 분분하고 이름 남기기를 좋아한다. 사찰을 새로 짓거나 각종 불사 후에는 반드시 전방 좋은 경내지에 어김없이 큼직한 오석(烏石) 명이의 창건비 또는 중창비가 세워져서 사찰을 찾는 중생을 압도한다. 사찰의 연혁이나 주요 사료를 알기 위해 그



이귀인 <한국석불신앙회 회장>

여기서 누구를 찾거나 그런 행위가 나쁘다고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는 불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찰공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교계 신문·라디오·TV의 광고를 보면 가

하는데 시주자의 이름을 영구히 보존한다든가 또는 이름을 적어 불상의 복장물로 넣어주겠다는 선전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불교계가 언제부터 부처님을 팔고 사는 상인집단이 되었단 말인가? 재가불자인 우바히·우바세는 삼보의 호지와 보시를 생활화함이 그 도리요, 출가자인 비구·비구니는 청정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하는 것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요, 동시에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바른 길 일진데,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생색내가 필요하단 말인가?

새가 허공을 날아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북한산에 있는 어느 사찰은 경내지에 있는 거대한 자연석의 앞면 전체를 다듬고 수많은 이름을 새김질하는 자비심(慈)을 베풀었다. 너무나 싫어 그곳에 계시는 한 스님께 여쭙어 보니, 이름을 새겨 주지 않으면 조그마한 규모의 불사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분단서 통일로’ 불교사상 토대 실천지표 제시

학답스님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지난 50여년 동안 분단의 세월은 우리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 고요한 시련의 시기였다. 불교교단은 민족적 고제(苛誦)의 해탈을 위해 어떤 역사적 지향을 보여 왔으며 사상적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교단정화운동은 일제 이후 대처화된 승단에서 비구승단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청정승풍과 수행기풍을 높였지만, 일제하 융성불교에서 성취된 선과 사회적 실천의 통합이라는 사상적 성과를 잊지 못했다.

봉암사결사는 중생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출발했던 결사가 아니라 순수 내관(內觀) 중심의 수행결사가 됨으로써 보리회향의 수행이 곧 중생회향 역사회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불교 본래의 수행관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결사였다. 이러한 봉암사결사의 한계는 곧 수행과 역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불교사상 역량의 한계와 치우침으로 이어진다.

지금 세계는 개인들의 다양한 개성들이 존중되고 민족과 국가, 국가와 국가간의 단절된 벽이 허물어지는 개방화의 시대이다. 그럼에도 오늘 불교교단은 보다 강화된 법통주의, 절대주의적 수행관, 폐쇄적 세계관들이 교단 구성원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다.

역사 없는 선(禪)과 선 없는 역사운동은 불교의 바른 실천관이 될 수 없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념적 수행관, 중생에게 섬김을 받을 뿐 다시 중생을 섬기고 역사에 헌신할 줄 모르는 이기적 수행관들에 대한 엄밀한 자기시정(自正)이 있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불전에 축원할 때마다 ‘남북통일 속성취’를 외우면서도 실로는 민족의 한 편을 저주해왔던 분열주의적



의식에 대해 철저히 참회하고 자자(自恣)해야 한다. 남한 불교의 기득권 확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북한 사찰의 주지직을 임명하고 집수할 궁리나 했던 탐욕심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 옹호, 정의롭지 못한 지배권력의 비호, 분단체제의 현상 인정에 동원되었던 왜곡된 불교이해를 청산하고, 불교 철학을 분단에서 통일로 지향하는 모든 실천대중의 사상적 지표가 될 수 있는 보편철학으로 해석해내야 한다. 기복적 신앙대중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는 사찰구조를 역사와 사회 앞에 개방된 구조, 대중을 불교적 이념으로 가르치고 다시 대중과 역사로부터 배움을 받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개편해야 한다. 사찰조직을 시군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를 넘어 불교정신을 시대에 맞는 방법론과 이념으로 다시 제하는 조직, 특수 포교업무를 표방하는 조직, 남북한과 전체 민족공동체에 불교를 전하는 조직단위를 특별교구로 인정해야 한다. 집기기와 탐 향기의 불사가 아니라 수행경사, 사회적 실천결사의 실천행이 새로운 이 시대의 진정한 도량(道量)불사가 되고 역사의 현장에 진리의 탐을 쌓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 김광용 한양대 교수의 지정토론회로 2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답스님의 기초발제와 김광식 박사의 주제발표는 불교의 통일론을 정리하고, ‘평화문화의 확산’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답스님과 김 박사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학답스님의 발표문은 ‘분단현실과 불교교단’ 부분을 요약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통일토론회 ‘불교 평화정신과 남북화해’

교류·지원 강화 평화문화 확산 불교역할 크다

김광식 / 21세기 한국연구소장

불교에는 분쟁을 넘어 공존으로, 상쟁을 넘어 상생으로 가는 철학이 확립되어 있다. 특히 화엄사상은 사사무애(事事無礙) 이사무애(理事無礙)의 통일, 그리고 평화사상에 있다. 한 사람의 개인도 소의 시킴이 없고, 하나의 물건도 허비함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지고, 그 개별적인 것들은 각각 특유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전체의 동질성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의 전체가 그것이 민족이건 국가이건 완전히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이루는 개별적인 것들이 자기 주장을 절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통일의 근본원리가, 바로 화엄에 의해 추출되고 원효에 의해 강조된 것이다.

불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로서 일단 짚을 수 있는 작업은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평화(공존)문화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방시키는 동시에 평화구조의 정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추진해 온 평화교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북지원 역시 늘려야 한다. 다만 불교계의 대북지원 활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북교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자유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규율이 존재하는 교류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 단체 차원에서만 교류활동을 편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 내 불교인의 일상생활과 사찰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지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양초 등의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사업과 지원활동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최근 북한



이 불교유적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고 남한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공동으로 문화재 도록을 만들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불교의 대응은 이런 노력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남한의 불교는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면서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불교사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은 ‘이 엄중한 분단의 시대에 불교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중생의 삶은 본질적인 내부 문제와 함께 분단이라는 민족 문제에도 함께 부딪히고 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한 불교가 과연 개인의 고통을 떠안으면서도, 동시에 민족적 현실인 분단을 뛰어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불교는 개인들이 겪는 고통과 개인들의 해탈문제는 잠시 접어둔 채 민족적 현실 속에서 규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한 불자들은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민족적 현실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목탁소리

김중근 (취재2부 기자)

교수 18명-강사 52명

실제 1인당 학생비율은 크게 떨어진 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수들은 강의가 많아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등 불교교양과목 강의의 상당부분을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교대학 교수가 18명인데 비해 강사가 모두 52명에 이른다든 점이 비전입교수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게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석좌 연구·결집 교수들의 총원과 대학원 전임교수제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양 필수 교과목인 ‘불교와 인간’ 강의를 불교학 전공 교수 전담을 원칙으로 하자는 방안은 더욱 그렇다. 아무리 교양강좌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국대가 불교학 교육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학교 측이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서울대 불리교육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8일 정부를 상대로 ‘수입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BK21(특허한국) 사업에 따라 교수가 대거 다른 단과대학으로 옮겨간 뒤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개설강좌가 31개에서 12개로 줄었고 교수 1명이 맡고 있는 6개 강의 외에 나머지 수업은 시간 강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도교수와 전임교수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동국대의 경우는 어떨까. 동국대도 시간 강사의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교대학의 경우 교수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5일 열린 ‘불교대학장단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에 따르면, 불교대학 학부 재학생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6명. 그러나 대학원과 학부의 전원을 대상으로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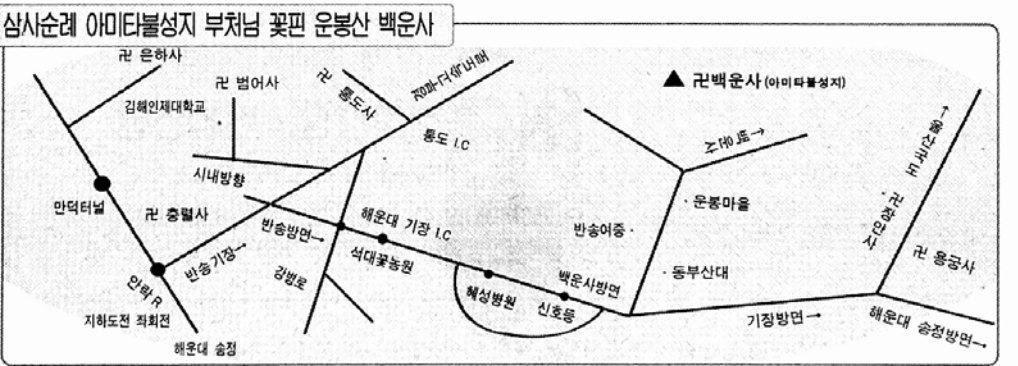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청지순례 범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매 핀 꽃 친견순례)

경진년(경진년) 설날 보름날 오후(밤)12시 가장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백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것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이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여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탄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서,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덮고 뒤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흰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문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룬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삼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버리고, 국가의 전문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심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살을 이리시길 다같이 기원 합니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합장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운사 TEL 051-542-4630

정토마을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안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의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섬터입니다. 불교는 이천년에 접어들어 의료복지 포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고 의료복지 포교에 있어서 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고 불교 호스피스 교육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에는 교육, 관리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보완하여 가면서 금년 제 13기 호스피스 교육을 정토마을 호스피스 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01년 7월 1일 오후 3시부터 2001년 7월 8일 오후 2시까지 7박 8일
장 소 : 말기환자 전인 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정토마을에서...
교육대상 : 스님
-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일반 재가자는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4월반 재가자는 불교인으로서 현재 병원 및 유사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연 령 : 일반인민은 35세~65세까지 (스님은 연령제한 없음)
인 원 : 선착순 25명 남·여
지 장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108 염주, 목탁, 추리남 한 벌, 반명함판 컬러 사진 4장 (스님: 가사, 장삼, 편리한 복장)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 방문
교육비 : 19만원
교육 후 활동 : 수료증 발급
- 한국불교 아미타 호스피스 협회에 등록되어 전국 각 병원 및 유사기관에서 협회의 관리를 받으며 불교 전문 호스피스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서접수 마감 : 2001년 6월 18일
- 명함, 유니폼, 수료증 발급 및 여러 가지 사전준비 관례로 교육 2주일전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접 수 처 : 흥북 청원관 미원면 대신리 정토마을 사무국 TEL: 043)298-2258(대), FAX: 043)298-1457

정토마을 호스피스요양원 소개
대상: 말기 임종에 이여 준비하는 말기 집안으로 고통받는 환자
특징: 말기 환자를 위한 심리인 정토마을 호스피스 요양원은 2000년 10월에 정토마을 부지에 완공된 독립형 호스피스 전인치료센터로서 환자들이 자연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의 간호를 받으며 평화를 생애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며 후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위한 병실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